

# 富山市 民俗民芸村

Toyama-shi Minzoku Mingei Mura



은수



도야마시 민속민예촌

## 관람료

| 대인          |      |
|-------------|------|
| 1관          | 100엔 |
| 전관          | 530엔 |
| 단체 (20인 이상) |      |
| 1관          | 90엔  |
| 전관          | 420엔 |
| ※고등학생 이하 무료 |      |

- 다실 등의 사용료 (민예합장관 · 엔진안) : 3,300엔
- 엔진안 (오차와 과자포함) 430엔

**문의처** 도야마시 민속민예촌 관리센터

〒930-0881 도야마시 안요보 1118-1

TEL : 076 (433) 8270 FAX : 076 (433) 8370

**개관시간** 오전 9시~오후 5시 (입관은 4시 30분까지)

**휴관일** 연말연시 (12월 28일~1월 4일) 아울러 임시개관 및 휴관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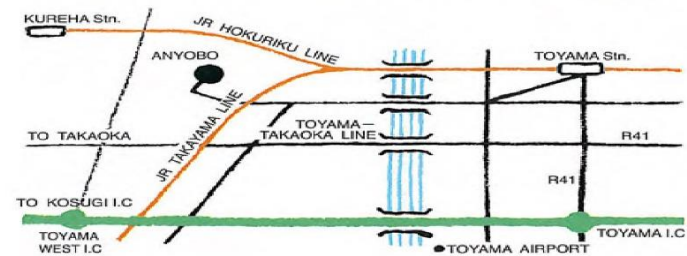
**교통안내** 택시→도야마역에서 차로 약 10분

버스→도야마역 앞 7번에서 승차

지테쓰버스 신사쿠라타니행 안요보 하차 도보 5분

구레하로진 (휠체어노인) 센터행 도야

마시 민속민예촌 하차







민예합장관의 역대로 만든 지붕

## 관람자 여러분께

도야마 평야 중앙을 남북으로 쭉뻗은 구레하(呉羽) 언덕, 그곳은 초록빛 짙은 자연의 고장으로 수많은 사적을 내장(內藏)하고 있는 문화의 고장입니다. 도야마시 민속 민예촌은 이 마을 한쪽에 있는 "안요보(安養坊: 지명)"와 함께 도야마 시민들의 휴식과 학습을 위해 열린 마을입니다.

도야마시에서는 1965년 민예관이 개관된 이래, 민예합장관, 민속자료관, 고고자료관이 설치되었습니다. 1979년 11월 "도야마시정(市政) 90주년"을 기념하여 이곳을 하나의 문화집락지로서 "민속 민예촌"이라 명명하였습니다. 그 후에 도예관, 다실엔잔안(茶室円山庵), 매약(売薬)자료관과 관리센터를 설치하고 1989년 10월에 "도야마시정(市政)100주년"을 기념하여 "다카무라규진(鷹牛人)기념미술관"을 개설했으며 2001년 11월에는 매약자료관 별관(前 미쓰다 가「密田家」참고)이 병설되었습니다.

마을 안에는 6세기 말경 반진야마(番神山) 오오게쓰보의 묘지와 겐페이전쟁(源平合戦: 내전) 때, 미나모토노 요시나카(普源義仲)의 부대장이었던 이마이시로 가네히라(今井四郎兼平)가 전승을 기원한 하치만 신사(八幡社), 가마쿠라시대(鎌倉時代) 옛츄(越中: 도야마현의 옛이름)의 도공으로 널리 알려진 사에키 노리시게(佐伯則重)를 찬양하여 세운 기념비 등이 있습니다.

또 도야마 성주 사사나리마사(佐々成政)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함복과 함께 삭발한 곳 도우신 산(道心山)이 있으며 에도시대 후기에 60여년에 걸쳐 도야마 주민들의 기부에 의해 건립한 530여체의 나한상을 모시고 있는 초케이지 절(長慶寺)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물과 자연과의 만남을 통해 여러분의 풍부한 감수성으로 즐기면서 마음껏 둘러 보시기 바랍니다.

## 民芸館

Mingeikan

### 민예관



결혼식때 사용하는 칠기 술잔, 에도시대

민예관은 1965년 나카다 유키치(中田勇吉)가 아버지(나카다세베이: 中田清兵衛)의 미수(88세)를 기념하여 기후현 히다시(前 가미오카마치)에 있는 오쿠무라가(奥村家)의 창고(메이지 12년: 방화건조물로 1879년에 건축)를 이곳으로 옮겨 지은 후 도야마시에 기부한 것으로 이 마을내에서 제일 처음 개관한 건물입니다.

이 창고는 굉장히 크며, 길게 나와 있는 차양(遮陽)이나 박공, 90센티 간격으로 세워진 튼튼한 기둥, 그것들을 잇는 넓은 인방(기둥과 기둥사이를 건너 끼운 나무), 훌륭한 마룻대 등 창고라고 하기에는 정말 아까울 정도로 격조 높은 건물로써, 창고 좌우에 있는 집들을 복도로 이어 민예관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전시품은 주로 민중적인 공예품으로 이른바 공예적인 미를 풍기는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민예관계 수장품  
 염직물 목조칠기  
 금속공예품 편조물  
 민화 유리제품  
 기타 합해서 약 1,800점

도야마시 안요보 1104번지  
 TEL·FAX: 431-6466  
 함석지붕의 목조 2층 창고  
 262.38㎡  
 개관: 1965년 6월



결혼식 답례품을 싸는 보타리로 도미(躰)를 다자한함. 에도시대 - 메이지시대



빛나 머리 장식등 등을 낚는 박정대 에도 중기

## 陶芸館

Tōgeikan

### 도예관



빨간 모란꽃을 그린 칠시 마루야마야키(丸山焼) 메이지시대

도야마 시내 후루사와(古沢)에 있었던 오오와리가(大割家)의 주택(메이지 27년: 1894년 건축)을 옮겨 지은 것으로 전형적인 기리즈마즈쿠리(맞배지붕: 도야마지방에서는 "아즈마다치"라 부름) 건물로 1997년 11월에 국가등록유형문화재로 등록되었습니다. 이 건물을 정면에서 올려다보면 장대한 박공과 그것을 지탱하는 인방(引枘), 동자기둥의 직선적인 구성과 그 공간을 채워주는 백색 벽과의 대비 등은 전형적인 아즈마다치 건물입니다.

실제로 들어가면 방 배치가 아주 유연하고 훌륭한 재료(거목)를 사용해, 여러층으로 짜맞추어 다락 층문까지 이어지는 호화롭고 웅장한 세이로(나무꺾등을 쌓아올린 모습)의 구조속에는 경이로운 아름다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4.5미터에 달하는 일본식 다다미방의 도쿄노마(방 한쪽을 조금 높게 만든 곳으로 벽에는 족자를 걸고 바닥에는 꽃 등을 장식해 두는 곳)와 다테야마 삼나무 한장으로 붙여진 천장판, 또 아꼴없이 옷칠을 해서 반질거리게 윤이 나도록 닦은 광택 있는 내부 기둥 등은 옛수인(越中人: 도야마 현인)의 집에 대한 애착과 정열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인기입니다.

전시물은 보통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자기입니다.

※도예 수장품

일본 국내외의 민간 가마에서 구운 도자기  
 독, 항아리, 주발, 접시, 발공기, 술병, 절주전자 등  
 약 500점

도야마시 안요보 50번지  
 TEL: 076(433)8610  
 맞배지붕 목조 단층집 329.04㎡  
 개관: 1981년 8월



오리를 본 때 만든 술병  
 고스기야키(小杉焼)  
 메이지시대

## 民俗資料館

Minzoku Shiryōkan

### 민속자료관



민속자료관은 도야마시 주변의 민속 자료를 수집하여 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1974년에 설치된 자료관입니다.

이 건물은 도야마현 도야마시 야마다나카무라(前야마다무라)에 있었던 다니우라가(谷浦家) 민가를 옮겨 짓고 일부 개조한 건물입니다. 에도시대 후기에 건설된 오래된 민가로서 새이엉을 엮어 만든 함장모양을 한 팔작지붕 건물입니다.

평야부의 민가와 비교해서 특히 박공(함장지붕의 양옆 삼각부분)이 크데, 야마다무라 지방에서는 이것을 "취파람새 형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박공구는 산간부로 갈수록 커지는데, 즉 함장 형식으로 지은 것을 말합니다.

※수장 자료

1층: 의·식·주류 중심으로 한 생활용품, 제례식용품  
 2층: 농경 용구, 임업 용구, 양잠 용구 등 생산용품  
 기타 합해서 약 1,300점

도야마시 안요보 56번지 1  
 TEL: 076(433)4109  
 새이엉을 엮어 만든 팔작지붕 모양의 목조 단층집  
 174.74㎡  
 개관: 1974년 6월



짚으로 만든 쌀상  
 (1가마에 쟁 60kg)  
 메이지시대

## 考古資料館

Koko Shiryōkan

### 고고(考古)자료관



점토로 만든 사람 무부(埴師), 제례에 사용함. 조몬(縄文)시대  
 (기원전 2000년경)

이 자료관은 도야마시에서 발굴된 매장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또한 관내에는 환일본해(환동해) 연안지역의 독자적인 문화를 연구하는 "도야마시 일본해(동해) 문화연구소"가 병설되어 있습니다.

도야마시 안오보 47번지 2  
TEL・FAX: 076(433)8634  
철근 콘크리트 고가식 팔각지붕 모양의 목조 단층집 336.02㎡  
개관: 1979년 11월

**선토기 시대 (석기시대)**

인류가 돌과 뼈로 도구를 사용한 시대입니다. 사카이노(境野) 신유적에서 출토된 석기에는 동북계와 중부고지(高地)계, 세토나이(瀬戸内)계의 석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서로 각 지역과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입구가 좁은 다홍색의 꽃병  
고대 고분시대

**조몬 시대**

약 1만년전 사람들은 토기와 활을 고안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또 조몬시대 전기(前期)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되어 만조가 구레하 산기슭까지 올라와 그 부근(小竹, 森: 오다케와 모리지역)에 기암조개껍질 등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중기(中期)에는 기타다이(國史跡北代) 유적 등 중핵적인 집락이 만들어졌습니다.

**야요이 시대**

기원전 1세기경 도야마에서도 쌀농작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요타(豊田) 유적·하리와라(針原) 유적 등 출토지(하천 등 흐르는 물에 의해 토사가 쌓인 토지)에 유적이 많이 있습니다.

**고분 시대**

구래하산 위에는 60개 이상의 고분이 나타났는데 4세기 초 납단 스키타니(杉谷)에는 시마네 현을 중심으로 이즈모 문화권에서만 볼 수 있는 "오스미 돌출형(네 모퉁이가 튀어나온 상태)" 등 초기의 고분이 있습니다. 중기에는 전체길이 50미터의 후루사와스카산(古沢塚山) 고분과 산기슭에 있는 사카이노신(境野新)유적에서 그 당시의 고대인(古代人) 주거(竪穴)가 발견되었습니다.

**나라 · 헤이안 시대**

구래하 산기슭 서쪽, 도치다니이나미(栃谷町) 유적에서는 대형 기와장을 구운 가마가 있으며 주위 산기슭 일대에는 도자기 · 제철(製鉄)이 번창하였습니다. 오네다다이카쿠(糸田代大覚) 유적지는 옛 관청이 있었던 곳이었으며 도요타오쓰카(豊田大塚) · 니카오시와라(仲吉原) 유적은 인면바쿠소(人面墨書: 사람얼굴이 그려져 있음) 토기와 인형을 사용하여 장식적인 축제가 개최된 곳이기도 합니다.

**赤薬資料館**  
Baiyaku Shiriyōkan

**매약(賣藥) 자료관**



약을 싣때 옆으로 주는 신물

이 관은 30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도야마 매약" 관계의 역사자료를 보존·활용하기 위해서 설치한 자료관입니다. 전시장에는 매약행상에 사용한 옹구나 제약에 사용한 도구, 매약 선전과 선물용으로 사용했던 판화 등 도야마 매약의 역사를 알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도야마의 매약업은 "선용후리(약을 먼저 고객에게 주어 사용하게 하고, 사용한 분량만의 대금을 나중에 회수하는 상법)"를 신조로 삼아 전국 방방곡곡에 좋은 약을 배달하여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온 장대한 전통 산업으로서 도야마의 문화를 전해 왔습니다. 또 이 관에 수장되어 있는 매약관계자료의 일부는 국가 중요 유형 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별관의 前 미쓰다 가(畠田家) 창고는 에도시대 중기에 창건된 매약상업가의 창고를 옮겨 지은 것으로 매약 판화 등을 기획·전시하고 있습니다.

※수장 자료  
제약관계옹구, 행상관계옹구, 신앙의례옹구,  
기타 합해서 약 3,000점



한권반(反魂丹)의 간반



매약자료관 내부

그 중에서 846점은 국가 중요 유형 민속문화재로 지정(1981년 4월)  
도야마시 안오보 980번지  
TEL・FAX: 076(433)2866  
맞배기와지붕 모양의 철근 콘크리트 2층 건물 867.34㎡  
(별관: 前 미쓰다 가 창고 2층건물)  
개관: 1984년 3월 (별관: 2001년 11월)



**箕牛人  
記念美術館**  
Memorial Art Gallery of  
Gyūjin Takamura

**다카무라 규진(箕牛人) 기념미술관**

이 미술관은 항토 수묵화가 다카무라 규진의 화업을 기념하여 그의 작품을 널리 후세까지 알리고자 세워졌습니다.

다카무라 규진은 탁월한 기술로 독자적인 화풍을 창출하여 일본화단에서도 이색적인 존재로 주목받고 있는 수묵화가로 주로 일본과 중국의 고사·전설 등을 주요 화제로 삼아 높은 정신세계를 화면상에 전개한 화가입니다. 특히 갈필법(붓에 먹물을 적게 묻혀 물기가 메마른 상태에서 붓자국이 나도록 거칠게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기법을 독자적으로 체득하여 아름다운 수묵화를 완성했습니다.

그는 항상 자연 속에서의 거침없는 삶에서 자신을 찾았으며 그 생애와 화업을 통해 동양의 정신성을 추구하였습니다.



고대 역사(力士)

※수장작품: 회화, 서예, 조각 등 약 700점  
도야마시 안오보 1000번지  
TEL・FAX: 076(433)9215  
연마루면적 567.28㎡  
개관: 1989년 10월

**茶室円山庵**

Chashitsu Enzan-an

**도야마의 다실 엔잔안(茶室円山庵)**



맞차(抹茶) 세트

엔잔안은 1920년 도야마의 다인(茶人) 가네코 소호가 그 지역(円山: 마루야마)에 지은 별장 "엔잔소우(円山荘)" 내에 "로쿠주안(録寿庵)"을 지은 것이 그 기원입니다. 그 후 현지로 옮겨 1980년 11월에 "다실 엔잔안"으로 명명하고 개관하였습니다. 다과회 등도 가능한 이 다실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차와 과자포함 430회)

도야마시 안오보 47번지 3  
TEL・FAX: 076(432)4782  
다실품으로 지은 기와지붕의 목조 단층집 114.08㎡  
개관: 1981년 11월

**民芸合掌館**

Mingei Gasshōkan



민예합장관 이로리(畳) 방

**민예합장관**

민예합장관은 에도시대 말기에 도야마현 도야마시 아마다스노우(前야마다무라)에 지어진 야마기시 가(山岸家)의 민가를 이곳으로 옮겨 지은 것입니다. 폭설과 거센 비바람에도 끄떡없는 거대한 기둥과 대들보는 주로 느티나무로 만들어져 건축기간은 8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이 건물은 휴식과 노동 공간을 잘 조화시킨 산중민가로 토지 특유의 굽은 목재를 그대로 사용하여 아름다운 곡선을 살린 건축 기술 등, 눈이 많이 내리는 산간지방의 자연과 생활 속에서 만들어진 깃소즈쿠리(지붕이 손을 합장한 듯한 모습)의 대표적인 건물입니다.

이 민가의 건축양식은 긴 세월을 걸쳐 그 지방의 기후와 풍토, 삶 속에서 만들어져 온 귀중한 문화재입니다.

도야마시 안오보 1004번지  
TEL: 076(431)8156  
세이양을 엮어 만든 합장지붕 모양의 목조 단층집 247.3㎡  
개관: 1969년 6월

**土人形工房**

Tsuchi Ningyō Kōbō



흙 인형

**도야마 흙 인형 공방**

흙인형은 덴진사마(天神様)나 오히나사마(일본옷을 입은 작은 인형)를 점토로 빚어 유약을 바르지 않고 저열로 구운 다음에 칠을 한 것입니다. 에도시대 후반에 도야마의 10대번주(藩主) 마에다 토시아스(前田利保)가 도자기공에게 명하여 덴진사마 상을 현상하게 한 것이 그 기원입니다.

그때부터 "데쿠사마"라는 이름으로 도야마현민에게 익숙하게 불리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전통적인 향토 완구를 보호 전승하고 소개하기 위하여 마을내에 "도야마 흙인형 공방"이 만들어졌습니다.

개관: 1993년 12월  
TEL: 076-431-4464  
FAX: 076-431-4463